

법공양 페이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
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바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 *
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 *
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
있습니다. *

승가원 사업계획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책새마을에는 다양한 연령층에 정상인 17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어 복지 및 재활사업이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시행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승가원은 심어년동안 특장인이 중심이 돼 자의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이뤄진다는 방침과, 시설에 전문인력을 갖추어 요보호 대상자의 인격형성과 생활개선에

노인복지 실버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현대 사회의 정서를 고려, 승가원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무료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승가원은 70대 노인 중 15%에 달하는 노인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원 설립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다. 또 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 '노인 회 노인 인연 맺어주기' 아동, 청소년 회 노인 인연 맺어주기, 효도관광, 상담실 운영 등의 사업도 발아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비구, 비구니스님들의 노후를 위해 각 100만원씩의 액수가 마련된 무료 실버담을 조성,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센터로 자리할 방침이다.

재활교육 시설에 전문인력을 배치, 단순히 원생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활교육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도록 하는 데 사업전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재활사업으로 승가원은 의료사업과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잡고 있다.

1차적으로는 자체 진료소를 개설하고, 진료사를 통하여 모든 원생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또 2차내지 3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산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중앙병원 협의를 거쳐 진료에서 수술까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여러명의 원생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아동, 노인의 재활을 위해 단순한 반복훈련인 공나물 재배에서부터 정상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동양산 재배까지 직업재활도 될 계획이다.

소책새마을 원장 보각스님



보살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호구책이 아닌 사명감으로 원생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난해 9월18일 소책새마을의 원장으로 취임한 보각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10여명의 상근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다.

재활 특수교육 · 의료사업등 역점

전문인력배치 장애인에게 교육기회 노인시설 · 프로 개발등 실버타운 준비

역점을 두고 종합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승가원은 전문인력배치 장애인에게 교육기회 노인시설 · 프로 개발등 실버타운 준비

청소년 · 아동복지 일반 교과목 중심이던 학습지도, 특기 · 취미교육, 생활체력교실, 정서함양교실, 사회적응훈련교실, 컴퓨터교육, 청소년과 아동들의 건강체력교육, 공부방 조성, 교육이 가미된 놀이시설의 확충 등 승가원은 소책새마을을 전문교사의 교육이 뒷받침된 참된 교육현장으로서의 조성을 시도한다.



◇소책새마을 어린이들이 특수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들의 보살핌 속에서 재활의지를 다지고 있다. 승가원은 원생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각종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소책새마을 지금은...

소책새마을에도 싱그러움 새봄이 찾아온다. 하지만 치악산 깊은 계곡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산속의 봄은 늘 이태마을보다 늦게 찾아 온다. 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따뜻한 양지기에 웅크리기 모여 앉아 새하얀 새하얀 이야기에 서간가는 줄을 모른다.

아이들의 발달한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에도 변화가 왔다. 회색벽 천으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와 관자집처럼 초라했던 2천여평의 소책새 마을이 하나 둘 활기 시작했고 새롭고 단정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던 대다 약취마저 질게 배어있던 비닐



◇승가원이 운영을 맡은 이후 소책새마을 어린이들은 어느 때보다 신나고 활기에 넘친다.

“아이들 얼굴마다 환한 웃음” 학인스님 · 자원봉사자들 상주 ‘정 나누기’

강원도 원주군 관부면 금대리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소책새 마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갓난아이부터 80노인에 이르기까지 1백 31명의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생활하는 보금자리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지난 7월 TV보도가 나간 뒤 7천여명의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들을 돌보아오던 봉사자들마저

이렇게 그동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던 소책새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책새마을의 변화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찾아 볼 수 있다.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책새마을에 상주하면서부터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세탁하고 껌에서 도시야아들 못지 않은 모델(?)로 꾸민 것이다. 이처럼 소책새 마을은

하우스 손을 비벼대며 라면으로 끼니를 이어야 했던 식당 곳곳을 홀리면서 양지쪽에 웅크리고 앉아 누군가 찾아오기를 손끝이 기다려다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그동안 등을 돌렸던 후원자들이 최근들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난달 승가원 법인회가 나면서부터 소책새 마을은 더욱 활기에 넘친다. 특히 승가원측이 특수교육과 출신의 교사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요원들 채용은 물론 오는 4월 8명의 원생들이 특수학교인 청원학교에 입학 예정이어서 소책새 마을 가족들은 더욱더 새봄이 기다려진다.

소책새 마을은 언론의 보도 이후 숱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원생을 주인으로 삼아 합리적 운영에 최선”

취임 3개월 개축건물 완공 전 재산 불교복지에 희망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중앙승가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삼전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학문적으로나 시설운영의 경험으로나 소책새마을을 정상화시키고 시설을 어렵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적임자로 정평이 나면서 학교와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의 요청에 의해 원장 소임을 맡게 된 보각스님.

낮밤을 가리지 않고 원생들을 위해 일해왔던 소책새마을의 정상화를 위해 뛰고 있는 스님은 지난 10여년간 한문두툼 모아온 전 재산 3억원을 중앙승가대 발전기금, 강화 선원사 양로원건립기금 그리고 불교사회복지사실 등에 선뜻 내놓는 등 끊임없는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자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스님의 행적은 그동안 소책새마을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했다.

또 스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에 치악산 국

립공원관리공단과의 근간길 줄다리기에 불구하고 1백80여평 개축건물 완공이라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원주 소책새마을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아, 무의탁 영아 및 노인 등 103명의 원생들이 오랫동안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때입니다.*라고 밝힌 스님은 그동안의 경험을 심본 발취해 명실상부한 종합사회복지센터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원생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 교육 ·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원생들이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복지죠.

스님은 또 지명봉사자교육 후원자 모임결성, '후원자의 날' 제정등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효율적인 관리기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이같은 원생들에 대한 스님의 식지않은 열정은 소책새마을에 뿐 아니라 불교사회복지계 전반에 희망적인 서풍을 예고하는 듯하다.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저희 소책새마을의 가족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평등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립니다. 어렵고 소외된 마을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며 함께 생활하실 분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또 마을의 1백명이 훨씬 넘는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부식과 간식, 장애인들의 치료와 운동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 학생들의 학습용 컴퓨터 등등.

눈에 보이는 도움뿐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과 정성까지 소중히 받겠습니다. 마을 가족들이 사랑을 베풀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길 기다립니다.



연락처

소책새마을 / 강원도 원주시 관부면 금대2리 1312-2
전화 : (0371) 762-3745, 763-3730
팩스 : (0371) 763-3730

법인사무국 / 서울시 성북구 안암 5가 102-62 원우B/D 3층
전화 : (02) 928-0750~1
팩스 : (02) 928-0752